

확진자 7000명 돌파...코로나 공포 재확산

광주·전남 111명, 전국 7175명
방역조치 강화에도 확진자 폭증
중증전담 병원 병상 포화 상태

광주·전남에서 '위드 코로나 중단' 조치가 무색하게 연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5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7000명을 넘어선 일상을 다시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 6면>

8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7일 하루동안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7175명이 나왔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했고, 일주일만인 지난 1일 5122명으로 첫 5000명대를 기록하더니 6000명대를 건너뛰고 곧장 7000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폭증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일부 중단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조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지만, 불어나는 확진자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확진자 폭증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광주·전남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은 지난 7일 기준 광주 57명, 전남 54명 등 역대 일일 최대인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상당수는 수도권 등 타지역 확진자 관련으로 분류됐다. 광주·전남에선 8일에도 오후 2시

현재까지 각각 22명과 50명 등 72명을 기록중이며, 국가 지정 및 중증전담 병원 병상도 포화 상태를 맞고 있다.

광주에선 이날 신규 확진자 중 8명(격리 2명 포함)은 기존 확진자와 관련된 연쇄 감염 사례다. 이 중에는 광산구 초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돼 해당 학교 학생, 교직원 등 901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또 동구 합창 모임 관련 2명(격리 중), 북구 물류센터 관련 1명, 북구 요양병원 관련 1명, 광산구 제조업 관련 1명(해제 전), 타지역 골프 모임 관련 2명, 타시도 확진자 관련 3명, 유증상 검사 4명 등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는 최근 확진자 수가 39명(3일)→40명(4일)→43명(5일)→47명(6일)→57명(7일)으로 연일 증가세다. 전남에서는 김장을 위해 시골집을 찾은 가족·친척들로 인해 장흥과 완도에서 집단 감염되는 등 수도권 등 타지역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은 특히 지난 6일부터 사흘 연속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날 현재 전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적게는 1명, 많게는 11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도 방역 관계자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자칫 일상생활을 중단하는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면서 "기본 백신과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고, 당분간 만남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붐비는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감염증 일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00명대를 넘어선 8일, 광주 북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 총력"

적극적인 백신 접종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등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재한 중

양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확산세가 매섭다. 의료 대응 역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택치료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재택치료의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희들이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

시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올해는 역대 가장 따뜻한 해

1~11월 기온 관측 이래 최고

9~11월 가을 기온도 역대 5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상청의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1~11월 평균기온은 14.4도로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최고였다.

12월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는 터라 올해가 1973년 이래 기온이 제일 높은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1~11월 평균기온 역대 상위 10개년 가운데 7개년은 2010년 이후에 몰려 있었다. 한국의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 기온이 특히 높은 것은 가을과 2월, 3월의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9~11월 가을철의 평균기온은 14.9도로 전국에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작년과 평년 가을 평균기온(14.1도)과 비교하면 0.8도 높았다.

올가을 평균기온이 높게 나온 것은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아열대고기압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평균기온은 20.9도로 20도를 넘기면서 1973년 이래 같은 기간 평균기온은 최고였다.

올가을 강수량은 256.4mm로 작년(270.4mm)이나 평년(266.1mm)보다 다소 적었다. 태풍은 9개가 발생했고 이 중 1개(제14호 찬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보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결과 (49~54세 여성, 평균 나이: 54.3세)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